

구강진료분담인력의 현황
(진료실 인력을 중심으로)

만성적 구인난 “숫자 늘려 해결하자”

위생사중 58%만 현역종사...보조인력 부족 심각
구강진료보조원제 도입으로 양질 진료 실현해야

현재 우리나라 구강진료분담인력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받은 구강진료분담인력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치과의원들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있고 직원들의 잦은 이직 등으로 진료의 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적절히 교육되지 않은 인력이라도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진료기관인 치과의원이 이들을 재교육하고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치과의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구강병예방과 보건교육을 주된 업무로 양성된 치과위생사들이 대부분 구강진료보조업무에 근무하게 되어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hairside assist 인 구강진료보조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 11월 9일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강진료분담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간호조무사취업률 및 연령분포(1997년)

연령	자격증소지자	비율	취업자수	비율	취업률
21-26	60,772	29.6	39,776	77.1	65.5
27-31	38,040	18.5	6,603	12.8	17.4
32-36	40,095	19.7	1,114	23	2.8
37-41	29,281	14.2	433	0.8	1.5
42-46	24,046	11.8	1,537	3	6.4
47-51	8,451	4.1	1,527	2.9	18.1
52-56	3,806	1.8	495	0.9	13.0
57세이상	690	0.3	104	0.2	15.1
	205,181		51,589		25.1

*한국간호조무사협회 1997년도 자료

치과대학 입학정원(2002)

대학명	입학정원
서울대	100
부산대	80
경북대	60
전남대	70
전북대	40
경희대	80
연세대	60
조선대	80
원광대	80
단국대	70
강릉대	40
계	760

요양기관 종사인력 현황(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02.4.30)

구 분	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 원	요양병원	의 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계	311,832	45,917	62,612	42,734	1,112	90,561	1,507	26,598
조산사	1,430	143	556	220	0	262	0	0
간호사 소계	80,950	19,920	27,621	13,681	373	9,746	27	450
간호사	79,926	19,782	27,409	13,280	363	9,658	27	450
가정전문	340	67	111	33	4	26	0	0
보건전문	30	5	7	5	0	2	0	0
마취전문	165	19	45	68	0	31	0	0
정신전문	489	47	49	295	6	29	0	0
간호조무사	82,987	3,507	5,762	7,079	166	46,180	124	11,035
임상병리사	13,712	2,443	2,997	1,588	37	5,862	23	7
방사선사	11,612	1,985	2,541	1,704	27	4,830	37	18
치과기공사	1,525	82	55	9	0	0	167	1,209
치과위생사	12,310	142	316	13	0	8	688	10,000
의무기록사	2,499	338	651	667	16	515	29	115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248	130	88	6	0	24	0	0
동위원소취급자 (특수)	234	114	77	4	0	34	0	1

치과의사 면허자대비 임상근무자비율

치과의사 취업비율(면허자대비수)			
년 도	총면허자수	취업자수	비 율
1984	4,983	3,759	75.4
1985	5,455	4,201	77.0
1986	6,070	4,662	76.1
1987	6,839	5,137	75.1
1988	7,758	5,908	76.2
1989	8,745	6,479	74.1
1990	9,750	7,116	73.0
1991	10,279	8,055	78.0
1992	11,438	9,126	79.8
1993	12,336	9,875	80.0
1994	13,099	10,506	80.1
1995	13,844	10,975	79.3
1996	14,535	11,571	79.6
1997	15,568	12,302	79.0
1998	16,321	13,010	79.7
1999	17,194	13,537	78.7
2000	17,956	14,034	78.2
2001	18,799	14,386	76.5
2002	19,588	15,224	77.7

치과위생사 취업현황

년 도	총면허자수	협회가입자수	취업자수	임상근무자의 비율
1984	2,029	1,462	876	59.9
1985	2,675	1,817	985	54.2
1986	3,854	2,268	1,315	60.0
1987	4,114	2,634	1,206	45.8
1988	4,777	3,200	1,766	55.2
1989	5,512	3,765	2,364	62.5
1990	6,310	4,542	2,370	52.2
1991	7,151	5,100	2,528	49.6
1992	8,143	5,786	2,545	44.0
1993	9,107	6,428	3,286	51.1
1994	10,167	7,501	4,019	53.6
1995	11,107	8,348	6,356	76.1
1996	11,277	8,485	6,704	79.3
1997	12,346	9,245	6,814	73.7
1998	13,769	10,096	6,648	65.8
1999	15,569	10,997	7,042	64.0
2000	17,104	11,715	7,692	65.1
2001	19,331	12,488	8,167	65.4
2002	21,381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자료인용

보건진료용역은 생산요소인 노동, 실물자본, 중간재 중에서 노동, 즉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

도라고 한다. 또한 보건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이용자의 직접적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기술적 과정이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년 도	응 시 자	합 격 자	합 격 률
1986	573	567	
1987	779	768	
1988	913	902	
1989	1,034	984	
1990	1,048	996	
1991	958	523	
1992	1,261	1,151	
1993	1,009	882	
1994	938	751	
1995	1,040	751	
1996	1,097	684	
1997	1,318	1,021	
1998	1,142	751	
1999	1,146	857	
2000	1,069	753	
2001	1,055	844	
2002	1,007	789	
계	17,387	13,974	80.30%

며, 의료이용자 즉, 환자에게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더욱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1986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구강보건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세미나'에서 "구강보건인력이 구강보건진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요소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원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동위원소취급자(특수)등이 일하고 있다. 이 중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중이 각각 38%와 41%로 구강진료분담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은 양성과정에서 배양되며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받게 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의하면, 양성학원에서 학교 교육 740시간 이상과 학원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하며, 총 이수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

에서의 실습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에 의하면, 시험과목으로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 기초개론을 포함),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요(의료 및 전염병관계법규 포함) 및 실기로 하며, 배점비율은 각각 40 : 20 : 20 : 20이다.

현재 전국의 모든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는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간한 세종류의 공통 교재를 사용한다. 기초간호학 개요 및 실기(1)과 (2), 보건간호

**2002년 현재 진료하는
치과의사의 숫자가 15,224명이므로
적정인력은 30,448~38,060명이 된다.
그러므로 대략 18,138~25,750의
인력이 부족하다**

학 개요 및 공중보건학개요이다. 교재의 전체 내용 가운데에, 구강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기초간호학 개요 및 실기(2)의 제9장 위생간호 돕기의 2. 구강간호 부분과 제19장 치과간호 돕기 부분이였다.

구강진료관련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교재분량에서 차지하는 상대분량으로 파악하였다. 각각의 교재는 내용과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에서의 상대비중은 2.8%이고, 내용의 상대비중은 4.3%이며, 기출문제의 상대비중은 1.9%이다. 그리고, 기출문제에 구강진료와 관련된 문항이 총 35개였다.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경우 전체출제문항중 치과관련문항은 1~2%에 그치고 있다.

이상의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검토해 볼 때 현재 양성되는 간호조무사는 치과의원에서 구강진료분담인력으로 일할 능력이 매우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치과의원에서 이들을 구강진료분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교육받은 유일한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2002년 현재 면허받은 치과위생사

치위생과 설치대학 및 정원(2002)

학 교 명	지 역	주간정원	야간정원
광주보건대학	광 주	120	
대구보건대학	대 구	120	40
신구대학	경 기	80	
원광보건대학	전 북	120	
대전보건대학	대 전	120	
진주보건대학	경 남	40	80
동남보건대학	경 기	80	
김천대학	경 북	40	
마산대학	경 남	100	60
동우대학	강 원	160	
수원여자대학	경 기	80	80
광양대학	전 남	120	
경북대학	경 기	80	80
전남과학대학	경 기	120	
극동정보대학	전 남	80	
제주관광대학	제 주	80	
삼육간호보건대학	서 울	50	
여주대학	경 기	80	
목포과학대학	전 남	80	
서울보건대학	경 기	40	40
수원과학대학	경 기	80	
가천길대학	인 천		40
안동과학대학	경 북	40	
신성대학	충 남	80	
포항대학	경 북	40	
동주대학	부 산	40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경 북	40	
연세대의과대학(원주)	강 원	40	
합 계		2,150	420

의 숫자는 21,381명이고 이중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은 12,310명으로 약 58%가 일하고 있다. 반면 면허 받은 치과의사 숫자는 19,588명이고 이중 15,224명이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과의사 1인당 0.81명의 치과위생사가 일하고 있다.

구강진료분담인력은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 명의 분담인력을 둘 수 있지만 대략 비서를 포함하여 치과의사 1인당 3명의 구강진료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구강진료분담인력은 치과의사 1인당 2~2.5인이 필요하다고 추산할 수 있다.

2002년 현재 진료하는 치과의사의 숫자가 15,224명 이므로 적정인력은 30,448~38,060명이 된다. 그러므 로 대략 18,138~25,750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간호 조무사를 구강진료분담인력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 다. 이로 인해 진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재교육을 시 키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 치과의원의 생산성이 떨어 지고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2002년 현재 치과위생과의 입학정원은 2,570명이고

**현재의 치과대학, 치위생과의
입학정원이 유지되고 치과위생사만을 구
강진료분담인력으로 간주하고
사회적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매우 많은 수의 구강진료분담인력이
계속 부족하게 된다**

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760명이다. 입학정원 모두가 면허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치과의사 1인당 2명의 치과위생사비율을 적용하면 한해 1,046명의 치과위생사가 더 배출된다. 이 인원이 현재 부족한 인원 18,138~25,750명을 채우는데 걸리는 기간은 17.3~24.6년이 소요된다.

미래의 진료인력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면허받은 숫자 모두가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급을 예측할 때 면허받은 숫자만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는 관련학과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면허를 따야 그 직종으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취직을 하고 퇴직을 하고 다시 재취업하고 결국 은퇴하는 과정을 겪는다. 면허숫자만을 따지는 것은 출생만 있고 사망은 없다는 가정하에 인구수를 예측하는 것과 같다. 즉 은퇴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숫자를 염두하고 수급을 예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이로 인해 수급예측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정확한 수급인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대



심포지엄에 관심을 갖고 자리를 가득 메운 관계자들

비 졸업비용, 국가고시응시자대비 합격률, 각 연령별 면허증소지자대비 취업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곤란한 문제가 각 연령별 면허증소지자대비 취업률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 직종의 life span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그리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니다. 실제 여성의 사회참여에 있어 육아, 가사의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중의 하나이다.

1997년 간호조무사의 연령별 면허증소지자대비 취업률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21~26세 연령군의 면허증소지자대비 취업률은 65.5%이나 전체의 면허증소지자대비 취업률은 25.1% 불과하다. 그러므로 21~26세 연령군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면허자수 205,181명중 취업자수를 계산하면 134,394명이나 실제 취업자수는 51,589명이다. 82,805명이나 오차가 발생하는 허구예측이 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근속연수를 고려해야 한다.

치과의사의 근속연수를 40년으로 치과위생사의 근속연수를 10년으로 가정하고 현재의 입학정원과 취업률, 국가고시합격률을 감안하면 치과의사1인당 치과위생사 0.7인이 일하게 되고 치과위생사의 근속연수가 15년인 경우는 1.1인, 근속연수가 20년이면 1.47명, 근속연수 30년이면 2.2명이 일하게 된다.

구로구에 있는 93개의 치과의원을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는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5세이하가 20명 26~30세가 33명 31~35세가 16명 36세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모두 13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5세이하가 63명 26~30세가 43명 31-35세가 23명 36세 2명 38세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조사가 진행돼야겠지만 구로구의 조사결과나 1997년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률

년 도	응 시 자	합 격 자	합 격 률	총면허자수
1971	15	11	73.3	11
1974	15	11	73.3	22
1975	21	18	85.7	40
1976	24	20	83.3	60
1977	28	25	89.3	85
1978	37	36	97.3	121
1979	177	132	74.6	253
1980	325	246	75.7	494
1981	404	265	65.6	764
1982	500	356	71.2	1,120
1983	663	346	52.2	1,466
1984	750	563	75.1	2,029
1985	772	646	83.7	2,675
1986	811	679	83.7	3,354
1987	890	760	85.4	4,114
1988	850	663	78	4,777
1989	993	735	74	5,512
1990	1,025	798	77.8	6,310
1991	1,011	841	83.2	7,151
1992	1,048	992	94.6	8,143
1993	1,029	964	93.4	9,107
1994	1,109	1,062	95.8	10,167
1995	1,102	1,001	90.8	11,170
1996	126	107	84.9	11,277
1997	1,173	1,079	91.9	12,356
1998	1,568	1,413	90.1	13,769
1999	1,992	1,800	90.3	15,569
2000	2,224	1,535	69	17,104
2001	2,644	2,227	84.2	19,331
2002	2,386	2,050	85.9	21,381
계	25,712	21,381	83.2	

*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자료 인용

간호조무사의 연령별분포 등을 보고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10~15년정도일 것으로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치과대학, 치위생과의 입학정원이 유지되고 치과위생사만을 구강진료분담인력으로 간주하고 사회적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매우 많은 수의 구강진료분담인력이 계속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부족한 진료분담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치위생과의 정원을 늘이는 방안이 한 가지이고 구강진료보조를 주된 업무로 하는 새로운 인력-구강진료보조원(chair-side assist)을 만드는 방안이 다른 하나이다.

이중에서 후자가 더 바람직한데 치과위생사라는 직종은 구강진료보조를 주된 업무로 양성되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구강보건교육업무와 구강병예방진료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치과위생사를 활용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업무 이외에 구강진료보조업무를 주된 업무의 하나로서 나열하고 있다

실제 치위생과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현재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은 구강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와 직무만족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는 주로 구강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구강병예방진료업무와 구강보건교육업무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로는 환자관리, 방사선촬영, 치석제거, 잇솔질 교습, 인상채득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에서도 환자관리, 구강진료보조가 구강병예방,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치과위생사들의 직무만족도는 낮은 수

준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구강진료인력을 dentist, hygienist, technician, chairside assitant로 구분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chairside assitant 라는 직종이 없다. 이로 인해 없는 이 직종을 대신하여 여러직종(치과위생사,

**구강진료보조원이라는
직종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고,
새로운 자원을 교육시켜 양질의
구강진료분담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을 대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강진료보조원이라는 직종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고, 새로운 자원을 교육시켜 양질의 구강진료분담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구강진료보조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강진료보조원의 업무한계, 자격요건, 교육기관과 교육주체 등의 양성방법 및 양성숫자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치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에게 단기교육을 시켜 구강진료보조원 자격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인원을 양성배출한다.



김윤관 원장
(김윤관치과의원)